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3월 1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교회학교가 새롭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원 유 진 -

할렐루야!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하게 해 주신 하나님,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도록 교사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즐겁게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초등부에서 찬양·율동 담당교사로 주일 1부예배와 2부예배의 예배 전 준비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이 된 2022년에 교회학교 봉사를 시작하였으니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감과 행복감으로 즐겁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교회내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까 기도하던 중에 어릴 때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학교 초등부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차례라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 못지않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아동부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는 부서의 여러 가지 봉사 직분 가운데 찬양·율동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배운 적이 없어 그 직분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애써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제 마음과 달랐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주일, 교사 감사기도회 시간에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를 그 찬양과 율동 담당교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선임 선생님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찬양 콘티를 짜며 찬송 가사의 주제인 성경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를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처음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찬송 가사와 곡조에서, 함께 따라 부르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찬송하였던 다음의 어린이찬송가(하나님의 꿈) 가사는 저의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 놓은 꿈, 내가 비록 힘없고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안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 놓은 꿈,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되는 것,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복의 통로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지금은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힘없고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새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꿈이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멋진 나무가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그와 같은 거룩한 꿈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룩한 꿈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주시므로 더욱 감사했습니다.

1년 후 번갈아 예배 전 찬양시간을 인도하시던 선생님들이 부서 임원의 중책을 맡거나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면서 제가 찬양·율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혜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피곤

할 때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충만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해 주셔서 아동부서가 전처럼 유치부와 유초등부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아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옆에서 저도 같이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루하루 지혜와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장차 우리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인재가 될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면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 콘티를 짜고 기도하고 가사를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린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지혜가 부족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찬송 가사가 주는 은혜와 감동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면 예수님이 꼬옥 도와주셔요...”(어린이찬송가 227장) “누가 안 보면 어때요 칭찬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어린이찬송가 261장)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어린이찬송가 145장)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상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동: 수원시 영통구 영동로 418 (영동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0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6단원 :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40과) 사랑으로 돌보는 일꾼

- 본문 : 빌레몬서 1:8-22
- 요절 :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1,2)
- 찬송 : 252장(새찬송가 518장), 259장(새찬송가 502장)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만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여 성도가 되게 하고, 꾸준히 사랑으로 돌보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일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듯이, 전도는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시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전도와 양육의 자세를 살펴봄으로 바람직한 일꾼의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 옥중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가 지난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때 바울은 오네시모가 같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불충한 종으로서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그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주한 범죄는 그 당시의 관례를 따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사람이 되어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편에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야말로 전도자로서 성도가 끝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1. 과거의 생활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말 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를 받아 강해진 성도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롬 15:1,2). 성도간에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도와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먼저 믿은 성도들의 할 바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그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단순히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해한 것은 오네시모의 죄를 묵인한다거나 인정해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 중의 괴수였듯이, 오네시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질책하기보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지은 잘못을 용납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으며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2. '나도 빛진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모두가 빛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빛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롬 1:14).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고전 6:20).

죄 사함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자각할 때 '나도 빛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마땅히 할 바를 한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바울 당시에는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진 빚은 가급적 계약한 대로 신속히 갚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이 때 빛진 자가 빚을 갚은 일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전 9:16)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책임져 줍니다. 전도하여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받은 사람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사랑의 심정으로 전도하여 영적 자녀를 낳은 사람은 그의 영적 자녀를 그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해두지 않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주고 이끌어줍니다.

바울은 도망쳐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중재(仲裁)하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모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 받은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남부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32명으로, 이 중 어르신 6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기남부지역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 : 2021년 59건 → 2022년 61명 → 2023년 69명)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르신 보행사고는 ①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길을 건너시거나 ②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어르신 보행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무단횡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어르신의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차량을 피하기 어렵고, 약간의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새벽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를 건널 때는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에서는 언제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 움직임에 주의하며 좌우를 확인하고, 특히 사각지대인 커브 길에서는 잠시 멈추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소 밝은색 옷이나 반사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계통의 옷은 지양하고 눈에 띄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